도서 · 벽지지역 주민 재정융자금 상환부담 경감

– 157만 농어민가구에 대해 총 255억원의 원리금 부담경감 –

■ **산업자원부는 '65년 이래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을 제정, 농어촌 도서 · 벽지 등 284만가구에 전기를 공급하여 왔음**

• 이러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은 그 자체로는 경제성이 부족하여 한전 등 전기사업자가 상업적 관점에서는 추진하기 어려워 그간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주민은 수익자부담의 부분적 적용차원에서 가구당 100만원씩만 부담토록 했으며, 이마저도 5년거치 30년 균등상환으로 저리 재정융자를 지원하여 왔음

• 금번에 「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」 개정(국회본회의 의결 '05. 9. 14)을 통해 약 284억원의 융자잔액에 대하여 ① '06. 1. 1부터 이자부담을 면제하고 ② 방앗간, 양어장 등 지역경제의 핵심기반인 대용량 사용자들의 원금상환부담을 1/3수준으로 크게 경감(상환금 산정기준을 계약전력 1kW를 1호로 하던 것을 3kW를 1호로 계산하는 것으로 변경)하므로써 농어민들의 부담(총 255억원이상)을 경감하고 해당지역의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였음

• 동법 개정 후속조치로 '05. 12. 26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농어촌전기공급 관련 재정융자금 이자감면조치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게 되었음

■ **금번 조치에 따른 개대효과**

• 현재 상환중인 157만 농어민 가구에 대한 원리금 경감혜택 : 총 255억원
  – 이자부담 면제 : 약 112억원
  – 대용량사용가구 원금상환부담 경감 : 약 143억원

• 특히 대용량사용자의 부담경감으로 양어장, 방앗간 등 소상공인의 사업활동에 활력을 부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[참고자료]

1.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개요

■ 농어촌 전기공급사업

– 전기공급의 경제성이 없는 도서 · 벽지지역의 주민에게 주민 및 국가가 공사비를 분담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벽지지역은 한국전력공사를, 도서지역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사업주체로 하고 있으며

– 이 사업의 적용대상지역은 도서 10호이상 지역을, 벽지 5호이상 지역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
  * 근거 :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시행령 제2조 (법적용 대상지역)

■ **공사비 분담비율**

– 전기공급시설 공사비의 재원은 재정융자금과 주민의 일시부담금(164,000원 부가세제외)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조달하고 있음

전기공급시설공사 비용분담내역

총 공 사 비		
전기수용자 부담	내선시설공사비(164천원)재정융자금(100만원)	
정부지원	국가 75%	지자체 25%

* 전기수용자 부담은 총공사비의 약 1% 수준임

■ **사업추진 절차**

① 대상지역 선정 : 지자체에서 매년 2월까지 한전에 사업신청
② 자금계획 수립 : 한전은 사업계획을 종합하고 3월까지 정부에 보고
③ 사업계획 확정 : 신청지역에 대해 정부, 지자체, 한전 합동 현장실사
④ 소요예산 확보 : 단위사업별 자금계획을 근거로 예산 반영
⑤ 사업최종 확정 :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시
⑥ 사업시행 통보 및 사업착공

2. 농어촌 전기공급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

■ 추진 실적

– '65. 12월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제정이후 전기가

공급되어 있지 않은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'04년까지 약 3,383억원을 투자하여 2,844천가구에 전기를 공급

〈농어촌전기공급사업 추진실적(04년말 사업실적 기준)〉

총공급호수 (천가구)	재원부담(억원)					
	총사업비	국고	융자	시 · 도	한전	주민
2,844	3,383	547	1,088	560	1,047	141

– '05년에는 115억원으로 7개벽지지역(39가구)과 4개도서지역(54가구)의 93가구에 전기공급계획

3. 도서지역 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

■ 사업목적

– 지방자치단체 및 전기사업자(한전)가 운영하는 도서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운영 결손비(연료비, 인건비, 수선유지비 등)를 지원하여 도서의 안정적 전력공급 및 도서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

※ 지원실적 및 계획

'04년 749억원, '05년 965억원, '06년 917억원

■ 성과목표

• 한국전력공사 운영 자가발전도서 37개의 운영결손액 100% 지원

– 500호 이상 8개도서, 499~50호 29개 도서

• 지자체 운영 자가발전도서 48개의 운영결손액 100% 지원

– 499~500호 26개 도서, 49~10호 22개 도서

• 도서자가발전시설에 대한 기술지원 및 인수비용 100% 지원

■ 기대효과

• 농수산업과 관광산업의 확대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도서지역의 전력수요에 대응하여 발 · 배전시설을 적기에 증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에 기여

• 양질의 안정적 전기사용의 권리를 보장하고 도서주민의 소외감 및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며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에 기여

• 지자체 및 주민자치로 운영하는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설비의 운전신뢰도 향상

[문의 :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 (2110–5472)]

전력IT 국책사업을 추진할 「전력IT 전문위원」 임명

– 권영한(前 한국전기연구원 원장) 전력IT 전문위원 위촉 –
– 2,500여억원 규모의 9대 핵심연구개발사업 등 운영 · 관리 –

■ 산업자원부와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는 오늘(12. 12) 권영한 前한국전기연구원장을 전력IT 전문위원(2년 임기)으로 임명하였음

• 전력IT 전문위원은 전력 · 전기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전력IT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·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됨

• 전력IT 전문위원은 올해 9월~11월간 공모 및 평가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되었으며, 오늘부터 전력기반조성사업 전담기관(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)에서 정식으로 근무하게 됨

■ 전력IT 사업은 기존 전력 · 전기산업에 IT기술의 접목을 통해 고부가가치화하고,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최근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사업임

• 특히, 민관 공동으로 2,500여억원이 투입(금년부터 5년여간)되는 전력IT 9대 연구개발사업은, 80여개 산 · 학 · 연 기관이 참가하는 전력 · 전기분야의 대규모 Project로서,

– 전력IT 전문위원은 9개 과제의 총괄관리, 관제간의 효율적인 연계 · 조정, 개발결과의 사업화 추진 등의 역할을 하게 됨

• 이외에도 전문위원은 전력IT 인력양성사업, 전력IT 표준화사업, 전력 · 전기분야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등 전력IT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됨